

8. 이스마엘의 가족 계보(25:12-18)

중요내용
* 고통스러워하는 하갈에게 천사가 확신을 준 것과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을 준 것(17:20)을 회상 * 지명된 계승자의 족보를 서술하기에 앞서 거부당한 아들(들)의 족보를 보여줌. 1) 핵심 인물의 내러티브를 완성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스토리를 마무리. 2) 인간 수신자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손의 서약을 존중하셨음을 증명. 3) 거부된 후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입음.

(1)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25:12)

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 25:12/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창세기에서 핵심을 이루는 구조 장치.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 족장의 유산을 받을 적법한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자임을 분명히 함.

(2) 이스마엘의 아들들(25:13-16)

1) 아들들의 이름(25:13-15)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계달과 앓브엘과 땃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 25:13-15/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의 목록.
 * 마할랏과 바스맛 두 딸은 에서와 혼인. 버려진 아들들에게서 태어난 두 나라의 연합을 강화.

2) 열두 지도자(25:16)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 25:16/ '열두 지도자': 강복 약속의 성취(17:20)

3) 이스마엘의 삶, 죽음, 경계(25:17-18)

17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앓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 25:17-18/ '이스마엘은... 백삼십칠세에... 죽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보다 48년을 더 생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차지한 지역.
 '형제의 맞은 편에 거주하였더라': 다른 형제들에 대한 적대감(16:2).

9. 이삭의 가족: 야곱과 에서(25:19-35:29)

* 요약
<p>* 이삭은 아브라함(조상)의 그늘에 가려 있거나 아들 야곱(이스라엘의 조상)의 배경으로 기능.</p> <p>* 야곱, 아브라함, 요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도덕적 과실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복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유익을 얻음. - 아브라함 문헌에서는 약속이 지배적이지만 야곱의 경우 언약의 발전이 전제되고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 변화와 함께 내적인 도덕적 변화가 일어남. 2) 야곱 이야기의 본질적 모티프는 '갈등': 야곱-에서, 야곱-라반, 레아-라헬. 벤엘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다툼으로 해결. 3) 야곱은 가나안의 야곱을 넘어 애굽의 야곱으로 이어지는 연결 역할을 하는 인물. 4)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는 명확한 반면, 야곱의 상속자는 유다로 희미하게 암시됨. 5)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 유다도 요셉도 그 지위를 갖지 못함. 시므온과 레위는 좌절을 겪지만, 열두 지파 모두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수혜자가 됨. <p>* 에서와 이스마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버림 받은 아들들로 약속의 땅 바깥에서 살 운명. 2) 에서와 이스마엘은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며 얽히게 됨. 아버지가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사랑함-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생. 3) 이스마엘은 추방되고 이삭은 남지만, 에서가 남고 야곱이 떠남.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에서와 야곱의 융화는 야곱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 <p>* 이삭과 야곱은 이들이 다른 나라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한 약속에 따라 주변 민족들에 영향을 끼침.</p> <p>* 이삭과 아비멜렉의 에피소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승자라는 증거가 됨.</p> <p>*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은 가족의 도덕적 타락의 깊이를 입증. 26장과 34장은 족장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지만, 각각 그 결과로 족장이 이득을 얻음으로 강복의 약속을 입증.</p>

(1) 출생과 장자권 갈등(25:19-34)

1) 서론(25:19)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21:12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 하갈로 시작하는 이스마엘의 '톨르돗'과 대조.

2) 야곱과 에서의 출생(25:20-26)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 25:20-22/ '이삭은 사십 세에': 이삭은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아버지가 됨.
 -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라반의 누이였더라':
 - * 나홀 가문의 족보가 소급. '밧단아람'을 언급함으로 야곱의 도주를 계획.
 - '임신하지 못하므로':
 - * 이삭의 아내를 찾은 것은 큰 장애가 아니었지만 리브가에 의해 계승자를 낳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음.
 - '여호와께 간구하매': 대리모를 찾은 부모와는 달리 이삭은 돌아서서 기도 - 하갈로부터 받은 고통의 영향?
 -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킴.
 -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기도가 실현됨.
 -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폭력적 충돌이나 찌그러짐, 깨어짐. 상호간의 타격.
 - '내가 어찌할꼬': 아이들의 기이한 행동을 반감의 징조로 해석하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숙고.
 - '내가 임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인가?', '아이들이 생존할까, 내가 생존할까?'
 - '여호와께 묻자온대': 남편에게 가서 이 남편이 중재자로서 신탁을 받고 이를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큼.
- 25:23/ '두 나라, 두 민족': 이스라엘과 에돔.
 - '나누이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을 연상.
 -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아들이 형을 지배한다는 관념은 청세기에서는 흔한 일.
 - 역설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에서에게 굴복.
 - '두 국민': 예언의 성취가 형제를 넘어 이들의 후손을 내다보고 있음. 에돔의 이스라엘에 복종의 역사.
- 23:24-26a/ '에서': '에돔'과 세 가지 발음상 유희.
 - * 세일산, 붉은(아돔) 것으로 인해 장자권 상실, 털이 많은(사이르) 특징으로 인해 이삭이 속음.
 - '야곱': '발뒤꿈치(아케브)', 발뒤꿈치는 신뢰했던 친구의 사기를 암시(시 41:9). '속였다(아카브)'. '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 사기, 배신, 기회주의의 관념.
- 25:26b/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 * 결혼 20년이 지난 후 이삭의 믿음과 주님의 약속의 충실함.
 - * 아브라함은 아직 생존하였고, 이삭은 180세에 죽음으로 그때 쌍둥이의 나이는 120세.

3) 장자권 거래(25:27-34)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 25:27-28/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 * 익숙한 사냥꾼이면서도 사냥에 실패. 주류 사회와 격리된 넓은 땅을 편안히 여김.
 -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조용한(탐)'은 '완벽함'이라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야곱이 택함 받은 이유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때문.
 - '이삭은...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사랑하였더라':
 - * 부모의 애정 사이의 대조.
 - * 다른 아들에게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아들에게 집착을 보였음을 의미.
 - * 자녀 편애는 세 족장 집안에서 모두 반복되는 특징.
 - *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그에 관련된 신탁을 알았기 때문?
 - *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 에서보다 크게 나올 것이 없음.

- 25: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이 죽은 '웬즈콩(아다섬)'으로 만든 것(34절).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능숙한 사냥꾼인 에서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역설.
- 25:30-31/ '내가 먹게 하라(어서 먹게 해다오)': 무엇이 게걸스럽게 먹는 것 같은 행동, '한 입에 삼키다'.
 '그 붉은 것':
 - * 심각한 상황을 빌미로 자신의 거친 요구를 정당화. '붉은(아돔)'은 후손과 연결.
 - * 이름과의 연결은 야곱(교활한 자)를 잘 다루지 못할 것을 암시.
 - * 출생 다툼을 묘사하며, 야곱이 에서보다 우월하리라는 신탁을 생각하게 함.
 '장자의 명분': *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권리는 우선한 상속의 권리를 수반.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써의 위상을 차지.
 * 이삭의 장자가 차지할 권리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나, '유산'과 '축복'이 관련.
- 25:32-33/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합리화하지만, 과장된 고통의 호소.
 '내게 맹세하라': * 에서가 다혈질적인 인물로 속임을 당한 반면 야곱은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속임수를 사용.
 * 야곱의 행동은 정당한 거래를 침해한 사악함의 표징으로 판단해야 함
 - 팔죽과 장자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므로.
- 25:34/ '야곱이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 * 에서의 단호함에서 엿보이는 그의 장자권에 대한 무심함.
 - * 에텐에서 하와와 아담이 주고 받은 열매를 회상.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과소평가하다', '무시, 멸시하다'.
 - 에서가 자신의 종교적 유산에 관하여 내린 결정이 아버지를 계승할 자격을 박탈했음을 암시.
 그러나, 야곱 또한 칭찬의 대상은 아님.

(2) 이삭의 기만과 블레셋 족속과의 갈등(26:1-35)

중요내용
* 과거와의 연속성 1) - 이삭을 아브라함의 이미지에 투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7회 등장. - 둘 모두 기근으로 이주하고 아내와 관련하여 이방의 권력 있는 왕과 갈등하며 블레셋 족속과 조약을 맺음. - 이들의 왕의 이름은 모두 아비멜렉이며, '브엘세바'라는 장소와 관계가 깊음- 우물을 파고 살고 조약을 맺음. -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이 회복 - 이삭이 하나님의 승인 받은 아브라함의 계승자임을 확고히 함. 2) -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6절)과 예배단을 세우는 것(25절)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 -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계승자에게 강복의 약속을 주었고 이를 통해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 복을 체험하게 됨. -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위협에서 적대감으로, 협력을 위한 친선으로 이삭과 관계를 맺음: 그 원인은 이삭의 변화나 성장이 아닌 하나님. 3) - 갈등: 리브가와 관련하여 이삭이 아비멜렉과 겪는 갈등/그랄의 몰사영권을 놓고 블레셋과 겪는 갈등. - 사기: 아브라함 2세가 된 이삭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아버지를 닮음-언약의 완성을 보장하는 이는 오직 주님. 그러나 이삭도 야곱과 리브가에 의해 속아 넘어감으로 '동해보복법' 관념을 발전시킴: 야곱도 마찬가지.

1) 그랄 여행과 사기(26:1-11)

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